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5월 19일 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58 호

불기 2565년 종령 봉축 법어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심청정(心淸淨) 불국토를 이루자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 이하여 모든 불자들과 종도들의 가 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의 장기화로 우리들의 생활전반에 심신(心身)간(間) 많은 어려움에 힘 겨워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신심을 더욱 가다듬어 오직 부처님법에 의 지하여 고락(苦樂)과 순역(順逆)의

불기 2565년 통리원장 봉축시

경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부처 님께서 중생들의 사바세계에 나투 신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중 생들의 삶의 고통을 멸하여서 마음 속에 영원한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 함에 있습니다.

고통을 멸하여 심청정(心淸淨) 불국토를 이루고자 함은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자 불교의 요체(要諦) 라 할 수 있습니다. 가히 불교의 시 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 (苦)의 소멸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이자 사성제, 팔정도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소멸은 우리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 지난 (至難)한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합 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의 실천으로써 고(苦)의 소멸이 가 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데서 고통은 사라집 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악(惡) 을 버리고 선(善)을 행함으로써 고 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 의 생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고(苦)를 과 자비행의 실천에 있습니다.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에 비견할 수 있습니 다. 힐링은 치유라는 뜻으로, 병을 치료하여 낫게 한다는 말입니다. 몸의 병을 치료하듯 마음속의 고 (苦)를 소멸하는 것이 힐링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인즉 고의 소멸인 것입니다.

치유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 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칭찬과 위로, 배려와 양보, 관심과 사랑, 이해와 용서라는 백신이 우리의 고통을 치 료할 수 있습니다. 칭찬으로써 용 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야

말로 치유의 묘약(妙藥)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묘약이 곧 부처님 의 소멸과 치유는 자비심의 발현 한 이를 헤아려 아는 것이 불교의 고의 극복을 오늘날 흔히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연등은 다름 아닌 고(苦)의 소멸의 연등이 며, 치유의 연등, 용기와 희망의 연 등입니다.

> 불기2565년 부처님오신날의 봉 축표어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희망 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시다.'입니 다.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의 등불 을 환하게 밝혀서 고통을 치유해나 갑시다. 부처님오신날, 불자님들과 종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와 지혜의 연등불이 충만하기를 서 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대형 봉축탑이 4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환히 밝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국난극복 염원이 담긴 서울광장 봉축탑과 장엄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원형으로 재현되었다. 〈관련기사 9면〉

마음을 밝혀 현세정화의 길로



불자들이 함께 노력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작금의 세상은 인류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실에 벌써 와 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변화의 특이점에 서 있는 지구 환경문제와 인공지능 AI로 대 표되는 과학기술, 어느 때 보다 과 잉된 개인의 이기주의에서 오는 인 오신 바 없이 오신 부처님께서 깨 간 소외와 갈등, 인간 정신의 파괴 달음을 세상에 펼치시니 부처님오 문제 또한 분명 특이점에 이르고 신날은 우리 불자들이 가장 환희롭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게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기 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 쁨은 어둠을 없애고 비로자나의 맑 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고 깨끗한 광명이 나타나도록 우리 는 이 상황은 인류가 겪어야 할 반 복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

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문제 들의 연속이며 그럴 때마다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입 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인류 는 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인간의 판단 여하에 따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다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 이는 여러 문제들은 사실 인간 마 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마음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위없는 법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마음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거둬 내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는 우리 자신이 이미 비로자나부처 님임을 믿고 현세정화(現世淨化) 의 길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은 스스로 어둠 을 밝히는 지혜 광명이 되는 것이 며, 타인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 은 비로자나부처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안팎이 하나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 지혜가 될 때 현세 정화의 길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 다. 현실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 비로자나의 맑고 깨끗한 광명이 나 타나도록 우리 불자들이 함께 노력 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잇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먼저 나의 고 실천하는 모든 불자 여러분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이 함

종/조/법/어

불법(佛法)은 체가되고, 세간법(世間法)은 그림자라. 마음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요, 본체(本體)가 곧게되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 2면 교계 봉축법어
- 4면 종단 봉축사
- 7면 부처님오신날 종령 예하 인터뷰
- 10면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3>

불기 25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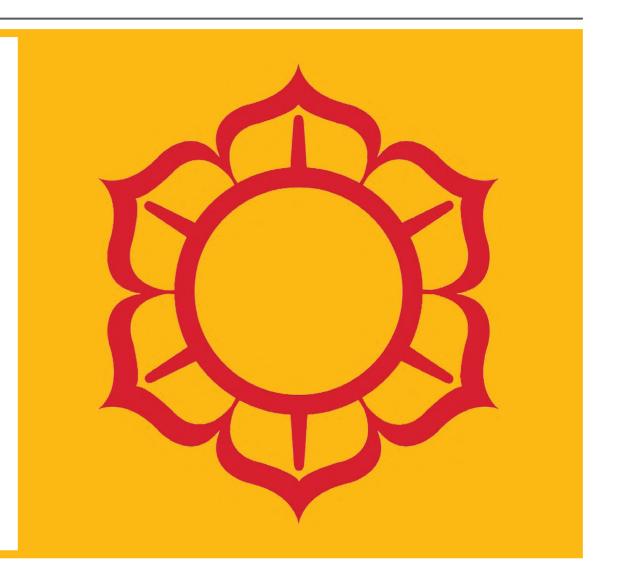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0년(2021년) 5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_ 전국 각 사원 서원당

※ 지자체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종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이 세상에 몇몇이나 될고.

우리 부처님께서 일과명주를 뚜 教)의 진리(眞理)뿐이라. 렷이 증득(證得)하여 도솔천에 계시 태중(胎中)에 잉태(孕胎)하여 열달 (降誕)하신 날입니다. 만에 우협(右脇)으로 출태(出胎)하 심이라. 즉시 일곱 걸음 걸으신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들도 무정들도 법열(法悅)로 가득하 (第一機)의 법(法)을 베푸시니, '하 일(日日)이 환희가 충만한 날입니다. 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獨尊) 고금(古今)을 통하여 이를 지 에 빠져있습니다. 나갈 성인(聖人)이 있으리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모든 인류시여! 합장예경(合掌禮敬)합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자연과 인류는 상생의 존재

그러나 자세히 점검컨대, 다리아 하는 존재입니다. 래 삼척(三尺)이로다.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일과명주(一顆明珠)를 아는 이가 리(眞理)를 제시하고 세세생생(世世 生生) 밝아 있는 것은 오직 불교(佛

다가 사바세계에 인연(因緣)이 도래 慈大悲)로 무명(無明)의 사바세계에 하여 백상(白象)을 타고 마야부인의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으로 강탄

차별 없이 일체중생을 교화(教化) 하니 지옥문도 사라지고 유정(有情)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제일기 니 시시(時時)가 호시(好時)이고, 일

온 지구촌이 거년(去年)부터 코로 게 생각하십니까? 높음이라'하심이여.(天上天下 唯我 나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

> 이는 '인간우월적 사고(思考)'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연과 인류(人類)는 상생(相生)

이 자연은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 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원(祈 이렇게 독특한 안목(眼目)으로 진 願)하며 물려준 것이며, 또한 우리도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穩全)하게

>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자연과 인간 오늘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大 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깨닫는 계기(契機)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시여!

부처님 전에 등공양(燈供養)을 올 려서 다생의 업(業)을 소멸하고 무 량(無量)의 복덕을 받으소서.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

일파유조수부득

(一把柳條收不得)해서

화풍탑재옥난간

(和風搭在玉欄干)이로다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봄바람에 옥난간에 걸어 둠이로다.

綠楊芳草渡 녹양방초도 何處不稱尊 하처불칭존 푸른 버들 풀잎 향기 그대로 어느 곳을 부처라 하지 않으랴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 도 천백억의 몸이 있습니다. 여 년 전에 도솔천에서 내려와 인도 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내려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와 태어난 뜻은 우리 사바세계의 모 든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해에서 윤회 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는 일도 없고 또한 머무르는 일도 없 습니다. 하늘 땅을 나누기 전에 있었 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었습니다. 태어난 일도 죽은 일도 없으니 사월 초파일에 탄생한 일도 없습니다.

든 중생이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병 니다. 들어야 하고 죽는 고통을 끝없이 이 우리도 부처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 일어났다하겠는가. 나무 석가모니불 어가야 하는 현상을 보고 이를 불쌍 보다 먼저 부처님이 되신 석가모니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성불을 향한 정진으로

부처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의 추구보다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 지혜로운 마음에서 희망을 보고 자비 의 실천으로 치유의 길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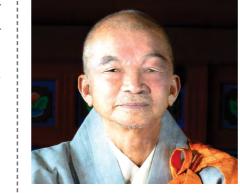
꿈속의 일들이 깨고 나면 허망하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대자대비의 등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지 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에서 목표이니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욕망

가는 데에 해탈의 평안한 길이 있습 니다.

사바에 오신 부처님을 지극히 찬 탄하며 귀한 인연, 성불을 향한 정진 는 중생의 삶 속에 자기보다 먼저 남 으로 이어나가 국태민안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회향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외치신 거

룩한 가르침이 고통과 혼란의 이 시

대에 더욱 빛이 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이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중략-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우리도 부처님이 되기 위하여

히 여겨 구제하여 모두가 부처 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합 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셔서 마야 부인 니다. 어머니에게 태어난 인연을 사월 초파 일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생노병사를 통하여 부처님 야합니다. 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를 따라 일 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 되는 까닭 고 경전만 알고 닦지 않으면 걷지 않 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은 천백억 화

중생을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비라 성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석 무수한 몸으로 변화하여 무량중생을

오늘 사월 초파일의 사부대중들이 여. 일체 중생들이여.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알면 부처님이 부처님은 본래 가는 일도 없고 오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법문이 끝없이 들립니다.

마음이 부처이기에 천지만유가 부 처님으로 보이고 바람에 날아가는 나 뭇잎 하나라도 부처님 법문으로 들리 지만 오늘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 같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바세계의 모 의 가르짐이 아니면 이들 알 수 없습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에 잘 써져 있고 경전에 써진 대로 익히고 닦아

경전을 보지 않으면 눈뜬장님과 같 는 사람과 같습니다.

부지런히 경전을 익히고 부지런히 신입니다. 오늘 태어난 부처님 외에 닦아서 부처님의 길로 어서 나아가야 겠습니다. -중략-

> 難難如平地靑天이요 난난여평지청천 易易似衣一覺睡로다 이이사의일각수 行船盡在把梢人에 행선진재파초인 誰道波濤從地起로다 수도파도종지기

어렵고 어렵다 평지의 푸른 하늘 같고 쉽고 쉽다 한 번 잠에서 깬 옷과

배가 가는 것은 모두 노 잡는 사람 에 있으니 누가 땅으로부터 파도가 하좌하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내가 가장 존귀하다 하시고 지금 그처럼 부처님이 오시는 날 뭇 중생은 한 몸이라 사자후 한 소리

오십니다.

경정 정사

진실에 감응하는 세상을 서원

하고 사람마다 마음 밭에 부처 씨앗 피면 하나가 여럿으로 여기저기 빛을 자랑스러워서 아프고 괴로워도 삶의 기운 솟아납니다.

세상살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거 늘 쉬운 일 즐거운 인생 그냥 있지 않 장해도 생명력은 어느 때나 불가사 습니다.

품고 정진합시다.

연등달아 불 밝혀서 초파일을 봉축 여도 안으로 눈을 돌려 그 바탕을 살 시다.

가꾸어서 슬기가 움 틔우고 자비가 내고 그 빛이 다시 뭉쳐 결 맞추어 장 싹을 돋우면 저이도 사랑스럽고 나도 엄하니 주객 노사 여야의 갈등은 어 울림의 소식입니다.

인생살이 늘 칼날위의 곡예처럼 긴 의 힘을 일으켜 질병도 고난도 그 모 낮과 밤 쉴 틈 없이 과학기술 일으 든 불상사도 편하게 하니 우리가 참 내일도 부처님 오실 날, 뜻 모아 받 키고 엄청난 생존경쟁 살아남아 미소 회하고 본모습 심인心印을 살리면 사 들면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지으려면 앞집 뉫집 이웃도 마음에 바 세상의 시름 내리고 정토가 열립 니다.

눈뜨면 세상살이 이것저것 달라보 조파일 기쁨안고 진실 감응 발원합

불기 2565년 부처ί 오신날



총지사

주교 | 원당

02-552-1080

관성사

주교 | 인선

02-736-0950

시법사

주교 | 혜광

032-522-7684

밀인사

02-762-1412

실지사

주교 | 덕광

02-983-1492

주교 | 록경

주교 | 화령

031-751-8685

지인사

주 교 | 승효제

032-528-2742

법천사

주교 | 승원

벽룡사

02-889-0211

정심사

02-491-6888

서울·경인 교구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미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존재하는 기 위해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함께 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 날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우리 모든 것들은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의 습관,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 이라는 그 지엄한 진리를 명심해야 민족은 한량없는 기쁨으로 이 날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하신 바 있습 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하겠습니다. 찬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 니다. 우리 인류가, 온 우주가, 서로 더 이상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 에 오신 그 큰 뜻과 우주법계(宇宙法 무한의 연기(緣起) 속에 자리하고 있 각에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우리 불 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 界)에 가득한 자비광명을 찬탄하고 다는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 자들만이라도 바로 오늘부터, 지금 다. 비록 힘드시더라도 모두가 환희 또 찬탄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극심한 병고(病 苦)를 앓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棄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삼 곡히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지 벌써 일 년 수개 덩어리를 짊어지고 금덩어리를 버린 월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통상 자기 습 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신종감염병 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략- 그러다보니 정작 눈앞에 금덩어리가 지만 백신 보급을 둘러싼 최근의 상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신 종감염병과 지구의 기후변화가 직접 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야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

여러 불전(佛典)에 '담마기금(擔麻

아직까지 이 질병의 고통은 그 끝을 판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극복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 나타나도 지금까지 지고 왔던 삼 덩 어리가 아까워서 차마 그것을 버리 격려하고 양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 지 못합니다.

두려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 의 평화와 행복은 우리 인류 모두가 어리석음을 떨쳐버려 주실 것을 간 염화미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황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하며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단 우리 인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지 불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국의 불자 여러분! 오늘은 뜻깊 이 순간부터, '담마기금'하는 집착과 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 이웃과 함께

부디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 일부 국가에서 개발된 코로나백신 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님의 탄신일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도 이 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 에서 다시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는 인류가 공동 있는 것입니다. -중략-으로 처한 방역과 경제의 대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노력에 온 힘을 모았으며 그 결 과 이제 그 끝이 조금 보이는 곳에 다 다랐습니다.

하지만 종착지를 앞두고 희망의 결 예경합시다. 실을 사유화하려는 일부의 지나친 경 쟁과 이기적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로나19사태는 탐진치에서 비롯된 이 기의 인연을 누겁 동안 쌓아 온 공업 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 법은 대지혜로써 완전한 자비와 평등 의 이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구현 해내는 것 뿐입니다.

일체 세간 모든 현상은 모두가 다 오늘은 불기2565년 거룩하신 부처 부처님의 설법이므로 지금의 고난은 참회의 거울이자 서원의 깃발입니다.

> 정진의 높은 고개를 바로 넘는다면 나눌수록 불어나고 함께할수록 깊 어지는 기적을 현실세상에서 이룰 수

불자와 진언행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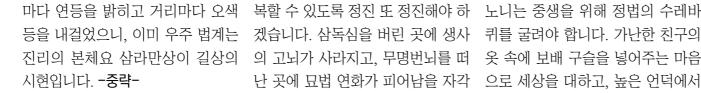
오늘 불기2565년 거룩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지혜의 빚을 전하신 부처 님의 크신 위력에 다같이 감탄하고

2천6백여년전 이 땅에 나투시어 만생명의 진정한 화합과 행복의 길 을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의 은혜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코 다같이 찬탄하며 봉축합시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호명 스님



곳에 무량한 행복이 있으며 일체중 생이 그 주인임을 구원실성의 법으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삼천대천 세 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뜻을 날입니다. 마음에 환희가 솟구치는 축복의 날 받들어 시름 깊은 세상에 행복의 에 입니다. 이 기쁜 날을 봉축하며 사람 너지를 전하고, 만 생명이 더불어 행 추어 주셨듯이 우리도 불타는 집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할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해야 하 노니는 중생을 위해 정법의 수레바 부처님께서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입니다.

>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일체중생이

난 곳에 묘법 연화가 피어남을 자각 으로 세상을 대하고,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는 정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하염없이 밝 진리의 몸을 받고 지혜의 눈을 뜨는 았듯이, 오늘 우리가 밝히는 봉축의 연등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자비 광명을 비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 주기를

홍파 스님



신록의 계절 가로수에 새 잎사귀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 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그 사이 로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는 연등들 시기입니다.

체되었고, 조그만 화면 속에서 엄숙 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의식만이 눈에 비춰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 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리석은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과, 노여움 그 신을 몽죽하는 것입니다. 리고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가르치셨 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움직이되 움직이지 심을 되찾읍시다.

못하고, 만나되 만나지 못하는 소위 언택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나친 욕심으로 환경과 생 태계가 무너지고, 미생물과 무생물이 살아가야 할 영역까지도 거침없이 간 섭하면서 오히려 인간 사회는 자유가 통제되고 인격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경제 생태계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 오색을 뽐내며 바람에 춤을 추는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편 의에 의한 지나친 생태계의 간섭을 그러나 봉축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 피해야 합니다. 합리적 불편은 사람

이것이 불기2565년 부처님께서 우

가르침의 실천이 바로 부처님의 탄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는 우리 모두 가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 환희



삼계개고 아낭안지(二界皆苦이 니 我當安之)."

계에 꽃향기 가득하고 일체중생의

히 해결하여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의 탄생게(誕生偈)입니다. 2 모여 공생(共生)과 동체대비(同體大 밝고 환하게 빛나리라고 생각합니 는 부처님의 탄생게를 볼 때마다 저 삶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는 부처님의 깊고 심오한 법안(法眼) 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 리고 '참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 게 조촐하게 봉행할 수밖에 없지만, 행복한 축제의 삶으로 바뀌길 진심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 민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고 그 '참 나'와 '참 나'들이 하나로 우리가 밝힌 등불은 그 어느 해보다 으로 기원합니다.

천6백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어찌도 悲)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고 그 불빛의 힘으로 코로나 이리 정확히 오늘의 인간세상을 잘 오늘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 19를 하루 빨리 극복해 평화롭고 안 내다보셨을까요. 한 치의 틀림도 없 을 축제로 기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리라 여깁 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희망과 치유의 연등으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극복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둡고 우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쳐버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이렇 해진 우리의 삶이 더욱 환하고 밝고

불기 2565년 부처녀오신날



주 교 | 정인화

051-896-1578

1 . 3

단향사

주 교 ㅣ 지 홍

055-644-5375

자석사

051-752-1892

덕화 사

주교 | 법상인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 행원심

법성사

주교 | 법선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ㅣ 묘 홍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ㅣ 금강륜

051-254-5134

실보사

주교 | 서령

052-244-7760

주 교 | 정원심

운 천 사

055-223-2021

정각사

주 교

051-552-7901

주 교 ㅣ 수행월

주교 | 도우

화음사

부산 경남 교구 일동

일상사

055-352-8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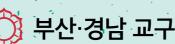
주교 | 우인

055-755-4697

주교 | 법선

동 해 사

051-556-0281~2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인류의 큰 병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스승이며 삼계의 자부이신 부처님께 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 럽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보기 때문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 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 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일 기르고 계행을 지켜 너와 나의 안전 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기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

여 주시고, 원하는 바 일체 소원을 이

운 이웃들에게 힘을, 용기의 빛을 내

간절히 발원드리옵니다.

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앙종의회의장 우인 정사

지혜로운 삶을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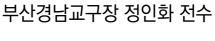
이 들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펜데믹 시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 가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리를 잃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불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어려운 이웃에 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힘과 유마경에서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 용기를 주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 음을 키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에 연등불을 밝혀 이는 모든 중생을 병든 외아들을 우리 모두 무명 중생에서 벗어나 지 혜로운 삶이 되도록 서원해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이 안으로는 인욕과 하심하는 마음을 깃들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일체중생의 고통을 멸하여 주소서

려주소서.

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돈독한 신심 으로 굳건히 헤쳐나가게 하소서.

또한 부처님의 참 말씀으로 우리의 하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일상 가운데 따뜻한 마음, 더 넓은 선 심(善心)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들의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일체중생 생각이 육자진언 속에 영원히 사라지 의 고뇌와 고통, 모든 재난을 소멸하 게 하옵소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 고, 용서할 수 있는 깊고 넓은 마음을 일체중생을 보살펴 주시옵고, 어려 심어주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어, 저희 례 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

들의 간절한 소원을 굽어살피시어 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 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 고, 부처님의 커다란 위신력으로 저 희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며 발원하 옵니다.

나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나무 준제보살 청정진언 나무 삿다 남 삼먁삼 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

옴마니반메훔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동체대비로 평화의 세상을

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로 많은 중생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 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중 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

살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화합하여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 의 등불을 밝히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종단봉축사

오늘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에 존 재하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존귀 함,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내 가 평안하게 하리라(天上天下唯我獨 尊 三界皆苦我黨安之)'라는 큰 가르 침으로 사바세계에 강탄 하신 부처 님 오신 날입니다.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표어는 '희망 과 치유의 등불을 밝힙니다'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코로나19 창궐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이 순간에 도 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 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대자비의 등불을 하나 더 밝히자

롭게 다스리면 나로 인해 모든 것이 것을 지심으로 참회합시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신날에는 마하심을 발휘하여 대자비 품인 참나(眞我)를 찾으라는 또 다른 의 등불을 하나 더 밝혀 봅시다. 자신 큰 법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 동국대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불 과 가족을 위해, 유연중생들을 위해, 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는 지혜 자들의 함성소리-오늘은 좋은 날! 부 이 지구상의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와 자비라는 훌륭한 덕성이 구족되 처님 오신 날! 귓전에 들리는 듯하건 을 위해 희망의 등을 하나 더 밝힙시 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와 탐욕에 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도 축 다.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을 제의 분위기를 누리지 못해 아쉬운 위해 치유의 등을 하나 더 밝힙시다. 로 길들어지면 극락의 길로 나아가

> 불자 여러분들이 밝힌 무진 등불은 반드시 내 몸, 우리 집, 우리 동네, 우 리나라, 이 세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밝고 맑은 광명으로 청정한 불국토 치유의 등불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를 이룰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1년 반이란 시 니다.

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 간 동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용맹 코 예외일 수 없는 그야말로 위중한 정진과 생활수칙을 철저히 실천하였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지만 기도 정진의 원력이 미약했나 이 지구상의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그간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안을 닦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것에 에 개개인이 삼업(신·구·의)을 지혜 유혹되어 전도몽상된 삶을 살아온

아마도 부처님께서 안을 지혜롭게 2천만 불자 여러분! 이번 부처님오 잘 닦아 자성불, 즉 인간 본래의 성 길들어지면 지옥으로, 지혜와 자비 게 됩니다.

> 2천만 불자 여러분! 우리 함께 넓 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밝힌 희망과 이 세상 존엄한 모든 생명들이 고뇌 를 벗어나 행복하길 간절히 기원합



불기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여 일체중생이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은 역사적 존재로 탄생하시 어 일체중생을 위한 삶을 사셨으며, 하실 때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 불로 삼아라. 자신이 주인이고, 가정 그 가르침은 생멸이 없고 시공을 초 월해 있기 때문에 우주 법계에 충만 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 의 주인, 나아가 세계의 주인임을 강 해 계십니다.

부처님의 역사적 시현은 모든 중 생이 부처님같이 절대 평등한 불성 (佛性)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시 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오신 것 입니다.

충청전라교구장 법우 정사

주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날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음을 이루시고 중생들에게 해탈의 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대도(大道)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 의 주인이며, 사회의 주인이며, 국가 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 조하신 것입니다. 之)'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으로 살아갑시다. 존귀하도다. 삼계가 다 고(苦)에 빠 져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 리라.'

이는 부처님만이 홀로 우뚝하게 높 으로 봉축하는 뜻은 부처님께서 이 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날 인도 카필라 왕국의 태자의 몸으 대지를 밟고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주 로 탄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왕위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 고 를 버리고 출가수도 하시어 큰 깨달 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

그래서 열반에 드실 때 자등명(自 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 하셨습니 부처님께서 룸비니 농산에서 탄생 다. 스스로를 능물로 삼고 진리를 능

임차인으로 살지 말고 당당한 주인



을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 서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합니다.

생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 고 신을 일깨워 부처님의 지혜와 대자대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웃과 사회를 비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

극복하고 모든 중생들이 안정된 삶을 지길 서원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개천사 건화 사 국광사 단음 사 주교 | 법등 주교 | 법상 주 교 | 혜안정 주 교 ㅣ 남 혜 053-425-7910 054-761-2466 054-772-8776 054-333-0526 선립사 수인사 승천 사 제 석 사 수계사 주교 | 시정 주교 | 도관 주교 | 법일 주 교 ㅣ 지선행 주 교 ㅣ 수 현 054-247-7613 054-746-7434 054-261-0310 054-745-5207 053-743-9812 대구 경북 교구 일동

제 96회 춘계 강공회 1박 2일간 개최

제 14대 종의회의장에 우인 정사 선출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 전국 현직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96회 춘계 강공회가 지난 4 월 14일, 15일 양일간 경북 청송에서 개최 되 었다.

첫날 오후 2시부터 개강 법회를 시작으로 로제 13대 종의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 14 었다.

종령 법공 예하의 강훈과 승단 총회가 진행되 었으며, 인선 통리원장의 강의와 종단 현안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 종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에 따라 승 단 전체의 직접 투표로 총 15명의 종의원을 선출하고, 신임 종의회 의장에 우인 정사, 부 의장에 서령 정사, 사무처장에 남혜 정사를 선출했다. 종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기 54 년 4월 4일까지다.

종령 법공 예하는 회향법회에서 "서원은 중생, 성취는 부처님의 뜻"이라며, "서원이 클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나, 놓지 않고 서원 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오늘 날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용맹정진 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인터뷰 6, 7면>

둘째 날인 24일에는 오전 공양 후 주왕산 관불 후 강공회를 회향했다. 금번 강공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질병관리본부의 이날 제 145회 승단총회에서는 4월 24일 방역지침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진행되

총기 50년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전국 서원당에서 지난 2월19일 입재한 총기 50년 불교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이 지난 4월 8일 일제히 회향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가 본산 총지사 회향 법회에 참석했다. 사진=전서호 기자

미얀마 평화와 민주화 기원



제 14대 종의회의원



종의회의장 우인 정사



종의회부의장 서령 정사



사무처장 남혜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불교총지종은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하고자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본산 총지사에 설치했다.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불교종지송의 교수는 대일여래입니다. 대일여래는 마하비로자나부처님을 의역 한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법신 부처님이 라는 뜻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과거불이나 석가모 가모니부처님이십니다. 니불의 깨달음에 관계없이 원래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존재하는 부처님으로 법 계에 두루 미치며 항상 머물러 계시는 진 여불입니다.

이 부처님은 세간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

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 지 않는 까닭에, 방편으로 한 부처님을 당 신의 몸에서 분화·화현시켜 사바세계에 내보냈으니 2565년 전 우리 곁에 오신 석

이처럼 법신 비로자나부처님는 모든 법 의 본체이며, 시작도 끝도 없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본불생의 부처님으로 언제나 우 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드리우고



2565년



만보사

주교 | 유가해

042-255-7919

법황사

주교 | 법우

062-676-0744

중 원 사

주교 | 정정심

043-833-0399

흥국사

주교 | 서강

063-224-4358

충청 전라 교구 일동

혜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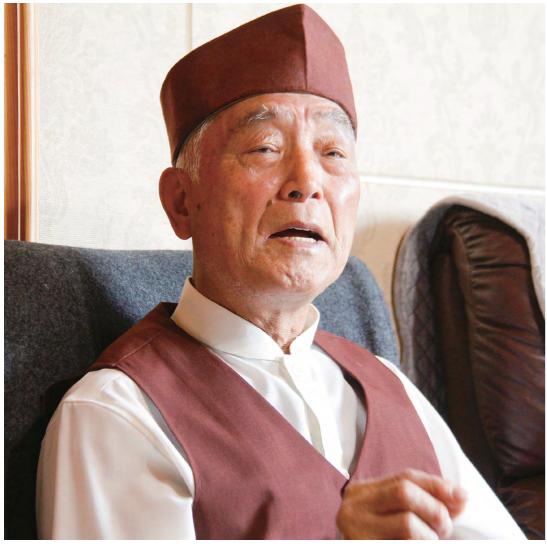
주교 | 진일심

043-256-3813

총기 50년 부처님오인날

불교총지종 제 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특별 인터뷰

총기 50년,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령 법공 예하를 예방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삶을 위한 특별 법문을 청했다. 본지 기자와 인터뷰 형태로 경북 영천 종령 예하의 사가에서 진행되었다. 종령 예하는 1943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 총기 원년 종단에 입교, 1983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 후 통리원 및 총지사 근무를 시작 했다. 제 10대, 13대 통리원장과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등 종단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정각사 주교를 마지막으로 2009년 1월 기로진원 후 2018년 1월 18일 제139회 승단총회에서 제 12대 종령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편집자 주



착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내 생활에서 고통은 점점 멀어지고 좋은 일은 가까워집니다.

66

"

1.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지 2,5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를 뛰 어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要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여섯 분의 부 처님이 계셨습니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 _ 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 됩 _ 진각종 스승이셔서 그 인연으로 포항 보정 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이고 니다.

하루 생활 가운데서 찾아보면, 생각보다 가 까이 있습니다.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 지 말고, 경전 들썩일 것 없이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착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비교해 봅니다. 쉽게 말해 내 생활 가운데, 주변에서 하기 쉽고 작은 것부터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업은 반복된 행동에서 습관되어 굳어집니다. 사소한 언어, 음식 등 같은 행동

의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할머니를 따라 1 년에 몇 번씩 절에 찾아가 어린 나이에 무릎 이 아프도록 계속 절을 했었고, 난치병도 차 츰 쾌유되어 지금껏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 습니다. 불교와 인연으로 치자면 그때부터 인 것 같습니다.

총지종 인연은 고모이신 불멸심 전수님이 심인당에 교도로 다녔습니다. 얼마 안 되어

사고로 2년간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유증으로 다리를 잘라 내야한 다는 판정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저의 마지 막 의지처는 불공뿐이 없었습니다. 수인사 에서 깁스를 한 상태로 49일 불공정진에 들 어갔지요. 때마침 수인사 학생회 하계 수련 대회로 록정, 환당, 법장화, 복지화 스승님 들이 다 오셨는데, 복지화 전수님께서 첫마 디에 "그때 종단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하 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고,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낫기만 하면 귀의하겠다는 서원으로 정진했습니다. 그 이후로 병세가 호전되고 나아지면서 승직에 들 결심을 굳 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수원 수입이 매년 집 한 채씩 그 이상 수입이 보장이 될 만큼 한창 수입이 한창일 때라 재물에 대한 미련 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금전 때문에 결심 을 바꿀 수가 없었지요.

데까지 반드시 순조롭지 않은 마장(魔障) 이 있습니다(호사다마(好事多魔)). 그때 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장애가 생겨서 잘 안 된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았 가 있었는데, 시인 입니다. 그 친구 영향으 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으 면 바로 그 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종령님 삶에 영향을 주신 스승님들에 대 해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말씀 부 탁드립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 법을 물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문수, 보현보살뿐만 아 니라 뱃사공, 상사꾼, 여인 등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가 선지식이며, 스승이었습니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중 에서 특히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큰 스 승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부친이 여덟 살에 돌아가셔서 조부님 밑 에서 자랐습니다. 고조부님이 좌수벼슬이셨 는데, 증조부님이 부친(고조부)의 위세로 모 든 가산을 탕진하고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 에 조부모님은 8살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적 수공권(赤手空拳)으로 삶을 시작하셨습니 다. 남의 배내기 송아지를 얻어 키워서 자수 성가하여, 30호 마을에 두 번째 가는 부를 이뤘지요. 땅을 더 사고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선비를 초청해 사랑채에 서당을 차려서 아버지를 비롯해 근동 젊은 사람들이 한학을 배웠습니다.

조부님은 글을 한 번도 배우신적이 없으 나, 반듯하신 성품으로 조그만 비위나 비리 는 절대 용납이 안 되며,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 등 많은 교육적 영향을 주셨습니다. 휘 파람을 불면 선비답지 못하다할 정도로 훈 육이 엄격하셨습니다. 조부모님의 지엄(至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해서 이행을 하는 嚴)한 눈빛은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고 고통 스럽고 불편했지만 그분의 교육 공덕이 현 재 나를 세워준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 니다. 또 중학교 때 김재진이라는 짝꿍 친구 로 어려운 시절에 많은 책을 읽고, 사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춘원 선생 작품을 거의 다 봤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이 있 었으며, 인과 관계 문제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 그 외에도 타종교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동학의 수운 선생의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부처님 말씀 중 '心佛及衆 生 是三無差別(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 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조금도 차별이 없 다'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4. 일반 대중들이나 현교의 불자들에게 총 지종의 밀법을 설하신다면 어떤 법문을 내리 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는 진리적인 고행의 힘이 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상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낳아

석가모니불은 일곱 번째 오신 오신 부처님 선업(善業)은 습관화 될 때까지는 힘이 듭 총지종이 창종되었고, 전수님을 따라 수인 이십니다. 일곱 분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니다. 예컨대,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 하나라 사에서 처음 총지 교도로 인연이 시작되었 공통된 가르침이 있으니 칠불통계게(七佛通 도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지속(持續)적으로 습니다. 戒偈)라고 합니다.

제악막작(諸惡幕作) 중선봉행(衆善奉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쉽게 요약하면, 부처님이 중생에게 명료하 게 가르치신 내용이 한마디로 '나쁜 짓 말고 착한 일 많이 해라'입니다.

따라옵니다.

잘 안됩니다. 습관화 될 때까지는 힘들더라 도 특단의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업에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쌓다보면 악 없이 부모님 농사를 이어 받아 사과와 포도 함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착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내 생활에서 고통은 점점 멀어지고 좋은 일은 가까워집니다.

2. 올해가 총기 50년입니다. 종령님께서는 이 주축을 이뤄 총지종을 창종하고, 한참 인 화엄경, 법화경, 팔만사천 법문할 것 없이 중단 창종과 동시에 입교하셨다고 들었습니 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수인사에서 불공 다. 총지종과의 인연담을 듣고 싶습니다.

전생에 불연(佛緣)이 있었다고 생각됩니 서울 본원에서 새해불공을 한적이 있었습니 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피부병(태중 다. 그 때 종조님을 처음 뵈었지요. 주교이셨 우리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는 말을 병-胎熱)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광주리에 던 복지화 전수님께서 각자님은 부처님 인 많이 하는데요, 생사(生死)간 고통은 악한행 담아 선반에 놓고 살면 다행이다 할 정도였 연이 지중한데, 종단에 입사(立師)를 권유하 으로 오는 것이며, 착한행을 하면 '안락'이 다니. 당시 조모님이 다급한 마음에 용하다 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 는 점쟁이를 찾아가 손자 살릴 방법을 물었 었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답을 드렸었죠. 답니다. 명을 이어주는 명부(命父)로 스님을 부처님 법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은 하루 만나야 살 수 있다 하여, 스님과 명부(命父)

승직은 총기 12년에 입사(立師)했습니다. 절에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다가 출가의 인 악한 업을 억지로 버리려 하기보다도 선 연이 잠시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꿈꿀 기회 를 키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 당시 종단은 종조님을 비롯한 복지화 전수 님 등 진각종에서 수행과 원력이 크신 분들 을 하고 있는데, 묘행정 전수님께서 내년 새 해불공을 총지사에서 해보기를 권유하셔서

그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불의의 교통



"우리 불공법은 미래불교에 큰 희망의 지표가 될 것"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인간 세상을 떠 난 산중이 아니라 세간의 인간 제도를 위해 가르침을 펴신 것인데, 자기만의 득도를 위 해 선방에서 화두에만 몰두하고 있거나, 초 파일 등 일 년에 몇 번 절에 다니는 형태로는 부처님의 바른 뜻을 펼치기가 어렵지 않겠 나 생각합니다.

총지종 창종 당시 종조님의 "생활이 곧 불 교요, 불교가 곧 생활이다. 생활하며 닦고 닦 으면서 생활한다."는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 습니다. 특히 '사사불공 처처불공 시시불공' 이라는 총지종의 불공법은 전통 불공 개념

년 반 만에 자진 반납했고, 재임에도 역시 1 년 반 만에 그만 둔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 찌되었건 임기를 채우기 위해 신념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외골수 신념 때문 에 미련 없이 통리원장 사표를 두 번씩이나 냈죠. 종령직도 전력을 봐서는 6년을 다 채 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내 성격만 내 세워서 두 번씩이나 그만 둔 건 좀 성급했구 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욕하고 밀고 나갔더라면 종단에 적은 성과라도 결실을 이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서원은 중생, 성취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이 클수록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을 뒤집는, 말하자면 가히 혁명적이었죠. 과 거 불공은 지정된 날짜, 초파일, 동지, 재일 등에 스님께 위탁되어 염불하고 절하는 것 이었지요.

절에 가야만 불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불공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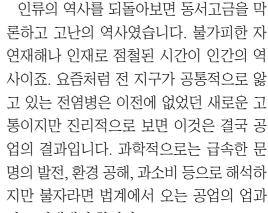
통리원 총무부장할 때 정각사에 어떤 문제 가 생겨서 해결 차 왕래하다가 결국 정각사 주교까지 떠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뜻밖에 최대 규모의 대표 사원의 주교가 되 다보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교화 경험도 전혀 없고, 설법 경험도 없이, 내가 생활, 모든 일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가지고 있는 상식 차원 내에서 몸부림 쳐야 했지요.

리는 지혜와 복을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균 형 있게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행하는 불자로서는 인과의 원 리를 알고,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생업, 금생업 등 업력에서 오는 것을 바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업 을 바루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 이 살길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깊은 잠에 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깰 '성(醒)'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한자로 닭 유(酉 술, 닭)부와 음(音)을 나타 내는 星(성)이 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술 에 취해 있다가 별을 보고 확 깨어나듯이 50 년이란 좌표를 보고 스승이나 교도 모두 깨

론하고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불가피한 자 연재해나 인재로 점철된 시간이 인간의 역 사이죠. 요즘처럼 전 지구가 공통적으로 앓 고 있는 전염병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고 통이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국 공 업의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급속한 문 명의 발전, 환경 공해, 과소비 등으로 해석하 지만 불자라면 법계에서 오는 공업의 업과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물공을 하다보면 '적은 고행은 공덕이 적 고, 큰 고행은 공덕 또한 크다'는 것을 경험 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부정 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공덕은 반드시 뒤따라 좋은 결과로 나타날

법계가 주는 반전의 기회라 생각하고 인 내와 극복으로 크게 재도약하시기를 서원

> 인터뷰=박재원 기자 사진=전서호 기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나쁜 짓 말고 착한 일 많이 해라' "선업을 습관화하기까지 특단의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월초불공, 자성불공과 49일 불공은 사회 거가 있었고, 북방불교로 넘어 오면서 석 달 로서는 불가능한 수행법이죠. 종조님께서는 가 됐지요. 이것을 생활에 맞게 49일을 상하반기로 나 눠서 불공법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저는 우 리 총지종의 다양한 불공법 중 월초 7일 불 공법이 가장 이상적 생활불공법이라고 자부 합니다.

서원은 중생, 성취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이 클수록 오랜 시간이 필 요합니다. 우리 종단이 지금은 비록 역사 화해 오실 수 있었던 종령님의 철학이나 신 가 짧고 미약하지만 우리 불공법은 앞으로 미래 불교로써 큰 희망의 지표가 될 것입 니다.

주요 소임을 맡는 등 전법과 종단 발전에 많은 로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0일 간 매일 천배, 철야정진, 칠정진, 사 해야 합니다. 비뚤어진 것은 바르게, 탁한 것 어나 혁신해야 합니다. 4, 50년 전의 틀을 깨 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생활을 하면서도 수행하는데 잘 맞춰져있습 경등 누가 시키지 않았으나, 선대 스승들이 니다. 부처님 재시 열대지방이다 보니 하안 보여주었던 보석 같은 진리를 거울삼아 과 업을 맑히는 노력에는 염송정진, 봉사, 불공, 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하게 부딪히고 정진해 나갔습니다. 고행 동안거가 생겼습니다. 실제 일반 생활인으 을 통해서 교화라는 분야에 힘을 얻는 계기 승의 입장에서는 법을 전해야하는 사명감과

> 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적인 고행의 힘이 쳐야 힘이 나옵니다. 미사여구로 유창한 설 가장 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길흉 법을 한다해도 전달이 잘안 됩니다. 비록 한 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간 내 앞에 온 것은 업이고, 업을 풀어야하 두 마디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솔선해서 하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부탁드 는 것도 바로 자신입니다.

념,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해주 십시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오. 5. 종령님께서는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의 는 종교나 사상을 떠나 누가 보든 보편적으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생활불교를 하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사람들은 대개 즐겁고 기뻤던 기억보다 힘 가르침은 결국 복지쌍수(福智雙修)입니다. 다. 우리는 종단의 성숙도가 나이(50년)에 들었고 잘못한 일이 더 기억이 납니다. 명예 가르침을 잘 배워서 내가 터득하고 그것을 와 재물은 특히 엄중경계 해야 하며, 명리를 남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더불 탐해서는 더욱 안 되고, 지혜롭다면 가장 멀 어 사는 인간으로서는 복이라는 분야도 소 리할 분야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50대에 홀히 할 수 없습니다. 현교의 경우 자기 수행 보다는 평소 생각을 많이 전하는 편입니다. 최초로 통리원장을 맡았는데 3년 임기 중 1 으로 지혜를 닦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면, 우 개인이든 단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만

은 맑게 하는 것이 '정업(淨業)'입니다. 내 희사 등 여러 방법이 다 해당됩니다. 특히 스 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장 가까운 결과를 만듭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는 지식이나 다 몸소 행해서 실천을 통해서 증득 과정을 거 증득한 힘을 얻어야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립니다. 있습니다. 스승이나 교도나 모두 끊임없이 6. 평생 종단에 몸을 담고 수행정진하며, 교 노력하는 실천이 긴요하다 생각됩니다.

> 7. 창종 반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스승과 교도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실천에 대해 설해주십

> 오십을 인간 나이에 비유하면 공자님의 표 준으로는 지천명(知天命)입니다. 하늘의 뜻 을 아는 나이가 된 것이지요, 과일이나 열매 로 보면 성숙, 완숙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 걸맞는가? 냉정하게 살펴봐야할 때입니다.

> 저는 대화할 때나 교육시간에 글이나 이론

고, 전통은 살리되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과 느냐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것입니다.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잘 전달 다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상에 가

8.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합니다.

제 12대 종령 법공 대종사

1996년 제 10대 통리원장 1996년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1997년 만보사 주교 2000년 제 8대 중앙종의회 부의장 2002년 성화사 주교 2002년 제 13대 통리원장 2006년 법장원장 2006년 정각사 주교 2009년 기로진원 2018년 종령 추대





심보이야기 19

제8식의 세 가지 특성

업과(業果). 부단(不斷). 변삼계(遍三界)

제8식은 다른 심식에 비하여 세 가 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업의 과보를 능히 갖게 한다는 뜻의 업과(業果)이다. 제6식 과 제7식은 인식의 작용으로 그치지 만 제8식은 인식작용을 종자로 바꾸 어서 저장함으로써 업에 합당한 결 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과와 이다.

두 번째는 부단(不斷)으로, 부단이 란 끊어짐이 없다는 뜻이다. 제6식 은 다섯 가지 단계에서 끊어지는 5 위무심이 있고, 제7식은 세 가지 경 우에 단절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8식은 유루계에서 단절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설명할 수 있고, 무루 계에도 통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문 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변삼계(遍三界)로 욕계 (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에 두루 하면서 과보에 따라 윤 회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제6식과 제7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어떠 한 형태로서의 윤회도 인정될 수 있 다는 점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업과 (業果)와 부단(不斷)과 변삼계(遍三 윤회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심식 界)의 세 가지는 제8식이 다른 심식 에 비하여 더욱 근원적이며, 항상(恒 常)하는 과보의 이숙식으로서 역할 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8식의 대상과 작용

제8식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대

상에 대하여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 을 살펴본다면, 제8식의 인식 대상 인 소연(所緣)에 두 가지를 들고 있 다. 처(處)와 집수(執受)이다. 먼저 처(處)라는 것은 초기불교 이후 지속 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며, 일반적으 로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인 기 세간(器世間)을 의미한다. 집수(執 受)는 받아 지닌다는 의미다. 제8식 이 무엇을 받아 지니는가 하면 첫째 는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업력 의 종자를 받아 지니고, 두 번째 우 리들의 몸을 제8식은 받아 지닐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제8식은 마음속의 정신적인 업력인 종자를 지님과 동시에 유근신(有根 身)인 자신의 신체를 지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8식이 작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둘

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고, 자신의 신 체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신의 근 원에 해당되는 내면적인 종자이다.

지혜

제8식은 종자를 받아 지녀서 잃지 않고 집수함으로써 마음으로 인한 모든 행위의 원리를 설명한다. 마음 과 몸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제8식 의 종자에 의해서 세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자 신의 신체를 유지하기도 한다는 점 에서, 제8식이 결국 우리들의 행복 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8식은 요별(了別)작용을 하며, 기세간을 대상으로 식별하는 인식작 용을 한다고 하였다. 흔히 제6식이 요별작용이나 식별작용에서 가장 뛰 어나다고 하며, 제8식의 행상은 제6 식보다 깊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미 세하고 은근하게 지속되는 인식작 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8식의 작 용을 종합하면, 과거 업력 종자에 의 하여 유정이 자체로 생(生)할 때, 안 으로 변하여 종자와 유근신인 신체 를 유지하게 되고, 밖으로는 기세간 으로 변하여, 이를 소연의 대상으로

삼아 요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8식이 우리들의 이 세상의 과보를 총체적으로 결정하고, 종자 를 지님으로써 모든 심식작용의 원 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숙의 근 본식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 또 한 제8식의 집지하는 작용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삶의 행복과 불행 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우 리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 한 심식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세간으로 제 8식이 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대상 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의 제8식의 업력 종자에 의해서 그 와 비슷하게 각자의 세상을 먼저 크 게 인식한다. 우리들이 전5식이나 제 6식으로 대상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들 심식이 인식하기 이전에 제8식이 자신의 업력에 따라서 대상 을 먼저 인식한다.

그리고 제8식의 인식작용이 이루 어진 이후에 전5식과 제6식 등은 제 8식의 인식작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 과하다. 그리고 전5식과 제6식 등의 이러한 인식작용은 다시 제8식에 종

자로 저장되어 또 다른 제8식의 인식 작용을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 세간에 대한 제8식의 요별 인식의 작 용은 전5식과 제6식의 인식작용 이 전에 일어나고, 너무 미세해서 일반 인은 잘 알지 못하므로,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불가지(不可知)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평소에 인식하고 활동하는 근원에 제8식 이 자리 잡고 있다. 가까이는 내 몸 을 이루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업력을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제8식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바 탕으로 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결정 된 인식에 의해서 행동함으로써 새 로운 종자를 양성하기에 이르기까지 심식작용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8 아 뢰야식의 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아뢰야식은 어떤 심 식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며 우 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뢰야식 의 작용은 워낙 미세하고 은근하기 에 범부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



연명의료 36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불교의 죽음 이해에서 중요한 용 어가 바로 생사윤회 열반이다. 생사 윤회와 열반은 불교적 죽음관의 핵 심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불교 이해 와 불교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붓다의 출가동기, 깨달음의 구체 적 내용, 그리고 열반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면, 불교의 죽음 이 것이다.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선 목적 은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 다. 출가를 만류하는 부왕에게 "죽 음이 없는 길을 알려주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싯다르타는 말하기도 했

다. 출가한 이후 오랫동안 진리를 추 구했던 그는 어느 날 진리를 찾을 때 까지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는 결심 을 하고 나무 밑에 계속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동트는 하늘에 서 샛별이 반짝일 때, 고타마는 자신 을 무수한 삶에 걸쳐 가두었던 감옥 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 명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다. 무명 때문에 먹구름에 가린 달과 별처럼 해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을 그의 마음은 미혹에 휩싸였던 것이 다. 미혹의 파도에 가려 우리는 실재 를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아, 존재와 싯다르타 왕자가 왕궁을 버리고 비존재, 삶과 죽음으로 잘못 나누었 민하게 만들었던 죽음이 알고 보니 다. 이렇게 차별하는 미음으로 인해 잘못된 소견 즉 감정, 갈망, 집착, 삶 과 죽음의 감옥이 생겨났다.

붓다는 무명(無明), 참된 본성에

대한 무지가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 으로 떨어뜨리는 근본원인임을 깨 달았다. 마음의 미혹을 끝내는 것이 곧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 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참된 본성 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정진 끝에 어느 날 새벽 마침내 깨달 음을 얻고 외친 첫 마디가 "나는 불 을 깨달았다.

보리수나무 아래 앉기 전까지 고 시 말해 그런 죽음은 없다는 뜻이다.

죽음이 있다는 착각에 지금 살아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인연의 결과일 뿐이지 실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붓다는 말한다.

붓다가 깨달은 다음 처음으로 제 시한 교리가 고집멸도 사성제이다. 고제(古諦)는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 는 고통, 집제(集諦)는 고통의 원인, 멸제(滅諦)는 고동이 없어진 상태, 도제(道諦)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다. 붓다가 태자 시절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사문유관(四門遊觀)할 때 직 접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출가했고, 깨달음을 얻자 마자 첫 설법에서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붓다는 생로병사 를 극복하기 위해 출가했고 깨달음 의 순간에도 불사를 얻었다고 선언 했으므로, 죽음 수용과 극복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심폐사와 뇌사 같은 육체

중심의 죽음이해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명(호흡), 체온, 그리고 의식 세 가지가 육신을 버릴 때 육신은 쓰러 져 마치 아무 감각 없는 나무처럼 된 다. 우리의 생명은 수명(호흡), 체온, 그리고 의식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호흡, 체온, 그리고 의식이 육신으로 부터 벗어날 때 이를 죽음이라 일컫 는다." <잡아함경>

살아있을 때에는 호흡, 체온, 의식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지만, 호 흡이 다하면 체온이 떨어져 육신이 차갑게 되고 이숙식(아뢰야식)이 몸 을 떠나게 된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정지하면서 육신은 기능이 다하게 된다.

열반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적멸을 뜻한다. 열반의 세계는 불생 불사이다. 따라서 붓다의 죽음이란 회,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붓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붓다 이 있는 해탈의 길 역시 붓다는 제시했 의 입멸이란 붓다가 불생불멸의 열 반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붓다는 자 신의 육체를 오래된 낡은 집에 비유 한다.

"세월이 지나면 집은 낡아 마침내 허물어지듯이 육신도 결국 죽게 된 다. 집을 받히고 있던 대지는 여전히 변함없듯이, 붓다의 육신은 죽었지 만 마음은 대지처럼 안정되어있다." <불반니원경>

붓다는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도 말한다.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은 죽는다. 수명은 반드시 다하게 되어 업에 따 라 인연의 과보를 받는다. 선과에 각 각에 결과가 뒤따른다. 복을 쌓으면 하늘 세계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도를 닦으면 생사 의 과보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 가... 윤회에서 벗어나 죽지 않게 된 다." <별역잡아함경>

누구든지 죽은 이후 업에 따라 과 보를 받아 윤회하게 된다. 그러나 윤 다. 붓다가 출가한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기 위한 것으로, 깨달음이란 생사에 자유자 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不死)를 얻었다."는 말이었다. 보 리수나무 아래 앉아 "죽음은 없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

실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만 들어낸 허구에 불과했다. 죽음의 순 간 우리가 맞을 죽음은, 우리가 생각 했던 그런 식의 '죽음이 아니다', 다

불기 2565년 부처ί 모신날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 김은숙 무 | 김옥인, 양재범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 류길자 총 무 | 신혜영, 조향선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 황월분 총 무 | 이귀선

금강 합창단

1 500

충청ㆍ전라교구 신정호

지회장 | 민순분 총 무 | 배정임

마니 합창단

단 장 | 최해선

만다라 합창단

단 장 | 이상록

곽노선 단 장 ㅣ

부림 합창단

단 장 ㅣ 조정애

봉축장엄등 점등식 전국서 열려

서울시청 앞, 부산 송상현광장, 국회의사당 등







맨 위부터 서울 시청 앞 봉축점등식, 국회 중앙잔디광장 봉축탑 점등식, 부산 송상현광장 연등축제 개막식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연등회의 시 작을 알리는 봉축 장엄등 점등식이 서울과 부산, 국회의사당 등 전국 대도시에서 연 이어 개최됐다.

지난달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 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올해 봉축탑에는 코로나19 극복 과 치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축하 의 미에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 을 함께 담았다. 봉축탑은 다음달 30일까 지 서울광장 앞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 롯해 봉축위원회 위원장 원행 스님(조계 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 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 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등 불 교계 지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 했다.

이어 4월 29일에는 국회 중앙잔디광장 봉축탑에도 불을 밝혔다. 이날 점등식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각 종단 지 도자 스님들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원욱 정각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봉축탑 점등식에 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을 불교계 에 전달했다. 21대 국회 정각회는 불자의 원들의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24명, 국 민의 힘 13명 등 국회의원 37명이 참여하 고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경선 스님) 는 5월 1일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부 산 연등축제 - 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송상현광장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장엄등 50여 점에 불 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국운융창, 부산발전 및 안녕을 기원하는 릴레이 약사 여래 기도 입재식도 병행했다.

이날 점등식 법석에는 정각사 주교 법경 정사와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를 비롯해 범어사 수지 경선 스님, 삼광사 수지 영제 스님, 진각종 부산종무원장 진광 정사와 태고종 부산종무원장 마나 스님 등이 참석 했다.

불전한역(佛典漢譯) 지혜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적 발전 당나라의 개방성, 세계성 중심에 '불교'

세계사적으로 고대가 끝나고 중세의 시작 을 대략 문명의 중심지와 주변의 융합으로 설 명합니다. 유럽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 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나 라가 멸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때 를 중세의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동로 마 제국과 서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는 언 제부터 중세의 시작으로 볼까요?

사실 근대 이후 서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세계의 여러 곳을 침략하여 식민 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세계사의 시대구분 은 서유럽의 역사를 기준으로 재단되었습니 다. 그래서 중세는 종교가 지배한 정체된 암 흑시대이고 르네상스 이후 비로소 근대 문명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러한 서유럽의 경험을 다른 문명권에도 기계 적으로 적용하여 중세시대는 발전이 없는 정 체된 암흑시대로 설명하였지요. 그러나 서아 시아 지역은 이슬람이 일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동쪽으로 전파되어 중국에 커다란 영 향을 미쳤고, 서쪽으로는 유럽에 고대 그리스 문명을 전달하여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데 커 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아시아는 중국 역 사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되는 당나라가 들어섰기에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문명권은 오히려 문명의 절정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유럽만이 낙후된 정체의 시기를 겪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중세의 시작을 지중해의 통일성이 무너진 시점부터 보는 관 점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 중해를 중심으로 마치 반지와 같은 형태로 영 토가 펼쳐져 있었다가 이슬람이 흥기하면서 지중해가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과 서아시아 와 북아프리카에 걸친 이슬람 문명권으로 나 뉜 시기를 중세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세의 시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 마 문명과 결합하여 중세 문명을 낳았고, 이 가 있습니다.

슬람은 변방 지역인 아라비아반도에서 일어 났습니다. 중국은 북방 유목민의 문명과 중국 문명이 융합하여 수 당대의 문명을 낳았지요.

그리고 종교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은 게르만족이 기독교화되어 중세 문화를 형성 하였고,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는 이슬람교, 동아시아는 바로 불교가 그 역할을 하였습니 다. 이 시기 종교는 이질적인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묶고 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습 니다. 중국은 북방 유목민이 황하 유역의 화 북지방을 지배하면서 한족과 유목민을 통합 시키는 원리로 불교를 선택합니다. 양쯔강 유 역으로 이주한 한족(漢族)도 불교를 본격적으 로 수용하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와 당의 지배층은 선비족과 한족(漢族)의 혼혈이었던 까닭에 외래 문명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이슬 람교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등 다 양한 종교가 전래되어 융성하였습니다. 그러 나 한족 이외에 선비족과 흉노족으로 대표되 는 유목민,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란계 소그드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뒤섞인 당 시의 중국을 통합으로 이끈 것은 불교였습니 다. 불교는 중국 문명에 매우 이질적인 성격 이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중국 문명의 전성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물론 화북지방에 나라를 세운 유목민들은 불 교를 통합의 원리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지만 그 정치적 권력을 빙자하여 다른 종교를 탄압 하는데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교 에 자극을 주어 하나의 종파로 성립하도록 하 였고 유교는 불교를 수용하여 송나라에 이르 러 성리학을 성립시키기에 이릅니다. 불교는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다른 종교와 사상을 억 압하지 않고 오히려 불전한역(佛典漢譯)을 통 해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적인 발전을 이뤄냈지요. 현재의 중국이 역대 왕조 중에서 습니다. 숭심 분명권에서 떨어진 수변에서 일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왕조가 당(唐)왕조입니 어난 세력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공 다. 당이 가진 개방성, 세계성, 독창성의 중심 통점입니다. 유럽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로 에 불교가 있었다는 점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 칼럼리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3월 21일 ~ 4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법상	4/19	20,000	미미위	김민주	3/25	100,000	석관실버	나석원	3/25	100,000		노점호	3/22	15,00
관성사	황성녀	3/30	10,000	세곡키움 센터	선혜종	3/25	10,000	복지센터	김윤수	3/29	10,000	정각사	탁상달	3/29	10,00
	인선	4/19	20,000		문주하	3/25	10,000	성화사	조용덕	4/5	50,000		안한수	4/3	10,0
관음사	김정희	3/26	10,000		록경	3/21	10,000	수인사	정순득	3/26	10,000		탁상달	4/7	10,0
	연등원	3/30	100,000	밀인사 밀행사 법천사 벽룡사 볏고을 어린이집	법수연	3/21	10,000		박성호	3/30	10,000	초록어린	이지희	3/25	50,0
	공덕성	4/19	20,000		최주락	3/24	10,000		무명씨	4/7	20,000	이집	강혜란	3/25	10,0
	상지화	4/19	10,000		정정희	3/31	5,000	실지사 아동회관 어린이집 양지	박현정	4/16	20,000	총지사	최해선	3/30	10,0
	수증원	4/19	10,000		김효진	4/6	20,000		박성호	4/19	10,000		김정환	4/5	10,0
	밀공정	4/19	10,000		김광혁	4/6	10,000		이순옥	4/19	10,000		원당	4/10	10,0
	총지화	4/19	10,000		김재영	4/6	10,000		정혜정	4/1	10,000		묘심해	4/10	10,0
	법수원	4/19	10,000		록경	4/18	10,000		연화법	4/1	10,000		백귀임	4/12	10,0
기로스승 - - - - - -	선도원	4/19	10,000		법수연	4/18	10,000		관득	4/7	10,000		신성희	4/12	10,0
	법지원	4/19	10,000		행원심	3/27	10,000		관득	4/15	10,000		신명준	4/12	10,0
	일성혜	4/19	10,000		이재은	3/27	10,000		덕광	4/19	10,000		신현태	4/12	10,0
	사홍화	4/19	10,000		반야심	3/31	10,000		보현	4/19	10,000		무명씨	4/13	50,0
	안주화	4/19	10,000		승원	4/19	10,000		진금선	3/31	50,000		최영아	4/15	10,0
	진일심	4/19	10,000		묘원화	4/19	10,000		정동숙	3/29	50,000		손경옥	4/16	10,0
	시각화	4/19	10,000		이민선	4/1	50,000	어린이집	001	3/29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3/29	100,0
	최상관	4/19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3/25	10,000	운천사	반야화	4/11	50,000	0,000	무명씨	3/30	10,0
	연등원	4/19	10,000		김용주	3/27	30,000	일원 어린이집 자석사	하재희	3/25	50,000		강점이	4/1	10,0
	장정숙	4/13	10,000		임지혜	3/29	10,000		최자영	3/30	10,000	화음사		4/1	10,0
단음사	신말심	4/13	20,000		남영애	4/1	30,000		이현직	3/30	<mark>10,0</mark> 00		무명씨	· ·	
동해사	법선	4/19	10,000		이진승	4/6	10,000		연명구	3/31	<mark>10,</mark> 000		무명씨	4/4	10,0
	김진화	4/5	10,000		김봉연	4/7	10,000		구미자	3/31	<mark>10,</mark> 000		박옥자	4/4	10,0
만보사	김강미자	3/31	10,000		권애련	4/13	100,000		도우	4/6	10,000		강승민	4/12	5,0
	최옥순	4/6	10,000		김갑선	4/19	10,000		지현 4/6	4/6	10,000	=1.	최영미	4/12	50,0
	강명순	4/19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여진	3/25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4/12	5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4/12	50,0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3)

다시 새기는 부처님 오신 뜻 영원한 대자유의 삶

해마다 오월이 되면 우리 불자들은 부처 의 문을 열었다"고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괴로운 전염병과 님오신날을 기리며 봉축 준비를 한다. 금 년은 코로나 대유행이 심화되는 와중에 맞는 봉축이라 부처님 오신 뜻이 더 각별 하게 다가온다.

금수저 중 금수저로 태어난 부처님

부처님은 싯다르타라는 이름으로 부족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불행도 맞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왕자로 태어났으니 누구나 부러워하는 탄 생이었지만, 싯다르타는 이런 부귀영화에 머물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맞는 생로 병사의 괴로움에 고뇌하다가 진리를 찾아 출가의 결단을 내린다.

싯다르타가 진리를 찾은 경로는 경전에 전하는 바와 같다. 6년 동안이나 혹독한 고행 수도를 했으나 마음에 번뇌 망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목숨을 건 고행 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 이다.

중도를 깨치고 대자유인 부처가 되다

이에 싯다르타는 고행을 멈추고 마을 처 녀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회복한 뒤 숲으로 가서 큰 보리수 아래 고요히 명 상에 들었다. 어느 날 새벽별을 보고 완전 한 깨달음을 이루고 마침내 깨달은 자, 부 처가 된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이제 티끌 같은 번뇌 망상조차 없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 인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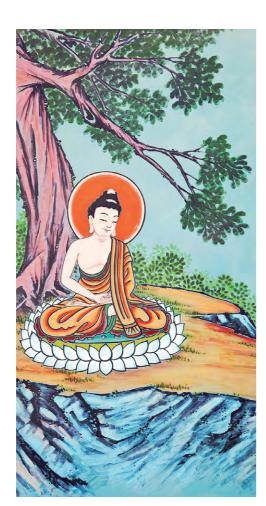
싯다르타가 깨치고 부처가 된 뒤 첫 설 법은 「초전법륜경」에 기록되어 있다. 부 처님은 자신이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시며 "중도대 선언"을 한다. 그리고는 "이제 불사(不死)

말씀하셨다.

이로써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로병 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 대자유인 으로 사는 길을 최초로 열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로병사의 괴로 움을 떠나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중도 를 알려 주셨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욕망의 과잉으로 음으로 가야 한다. 빚어진 지구 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코 로나 대유행 2년째를 맞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 따른 과보로 지구촌 곳곳 적 욕망과 허무주의의 양변을 떠나 중도 에 감염병과 죽음이 넘쳐나고 있다.

억4천여 만명,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었 무소유의 수행 공동체로 사셨다. 다. 세계 최고 선진국가라는 미국은 사망 자가 56만 명이나 되어 2차 세계대전 미 군 사망자 수를 넘는다. 비록 백신이 개발 되어 사태의 수습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부처님의 지혜로 코로나와 문명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도 부처님처 럼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 의 삶을 누리려면 중도를 수행하여 깨달

부처님은 고행과 쾌락의 양변을 떠나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셨듯이 우리도 물질 로 가야 한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속에서 4월 22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시고는 평생 걸식과

>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라는 부 왕의 권유도 거절하고 부처님은 평생 걸 식과 집 없이 무소유로 사셨다. 부처님은 물질과 욕망으로 사는 삶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하지만, 물질과 욕 망을 떠나 걸식과 무소유의 삶에도 얼마 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몸소 알려주기 위 해 그런 행을 하셨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심각 한 인류 문명 위기와 코로나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자기 안의 욕망을 비우고 남을 돕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소욕지족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칭. 일본 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A Small, Good Thing> 에서 따와 만든 신조어)이 참 행복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타행이 인류 공동 체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야 할 때이다.

>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수행과 확철대오의 종지로 정진하자"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대종사 추대 법회



세 종정 지허 대종사 추대법회가 지난 4월 28 수지했다. 칠전선원에서 차밭을 손수 가꾸며 일 오후 2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 선과 다를 익혔고, 1979년 순천 금둔사 복원 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봉행됐다. 지난해 7 중창을 이끌었다. 선암사 주지(1994~1997). 월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만장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 일치로 종정에 추대 후 코로나 여파로 9개월 (2005), 선암사 부방장, 용연사 주지, 제2·4·5 여 만에 법회가 열렸다.

1956년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정을 위해 앞장서왔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 제20 관음선원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대 원로회의 의원을 역임했으며, 원융살림과 지허 대종사는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도개혁을 원칙으로 태고종단의 화합과 안

불교TV 대표이사 성우 대종사 연임

신임이사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진각송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선임됐다.

교TV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진각종 통 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승 리원장 도진정사를 당연직 신임 이사로 선임 인했다.

BTN불교TV 대표이사에 조계종 원로의원 하고, 불교TV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와 복지 무봉 성우 대종사가 연임됐으며, 신임이사에 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을 이사로 재선임했 으며,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지난 3월 31일 무상사에서 개최된 BTN불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Tel. 051.555.4456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다 함께 성도합시다." 전국 사원에서 봉축등 달기로 부처님오신날 맞이

등공양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다. 『현우경』 <빈녀난타품>에는 '가난한 여인의 등불(貧者一燈)'의 이야기가 있다.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의 지극한 서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만이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 말씀하셨 다. 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지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전국 사원마다 교도들은 봉축등 달기로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며, 세상의 무명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 주기를 서원했다. 편집자 주









고맙습니다

총지사 김성민 교도

결혼

축하드립니다

[총지사]

송경옥 교도 자녀 3월 21일 홍수민 양

[밀행사]

행원심 전수 자녀 4월 17일 이지은 양

춘계강공 승공양

관성사 신정회 관성사 이타심 교도 성화사 신정회 덕화사 김정애 교도 자석사 신정회 실보사 전정옥 교도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 단음사 신정회 권순복 부회장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총지사, 정각사 '사랑의 카네이션'

사(주교: 원당 정사)와 부산 정각사 를 가졌다. (주교: 법경 정사)에서는 5월 8일 월 도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 모님의 은공을 기렸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본산 총지 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기념행사

참석자들은 다함께 케이크에 촛불 초 불공을 마치고 참석한 어버이 교 을 켜고, '부모의 은혜' 합창으로 부





본산 총지사(위)와 정각사(아래)에서 5월 8일 어버이날 감사의 행사를 가졌다.

총지스케치 부처님오신날

불교총제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진호국가불공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월초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깈 266-78	(043)833-0399

사원 일람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인선 정사 중앙종의회의장 우인 정사 사 감 원 장 법경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원당	 밀인사 주교 록경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법상	법황사 주교 법우
재무부장 덕광	관성사 주교 인선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법등	만보사 주교 유가해
교정부장 승원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혜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종무원 일동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혜정사 주교 진일심
	시법사 주교 혜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도관	흥국사 주교 서강
중앙종의회	실지사 주교 덕광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수현	
사감원	지인사 주교 승효제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일	
원의원	총지사 주교 원당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시정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경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우인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불교총지종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	湿			5年0八0